

## 양질의 군수품 조달 위해 국방규격 품질 개선

방사청, 국방규격 품질 개선사업 시행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입력: 2013.05.21 13:58:02

방위사업청은 양질의 군수품 조달을 위해 군수품의 규격을 개선하는 '국방규격 품질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방규격 품질 개선사업'은 군에서 운용 중인 장비와 수리부속, 물자류 조달 시 국방규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불만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지난 4월 입찰을 통해 (재)한국조달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하고 이달 21일부터 약 8개월간 350여개 군수품을 대상으로 국방규격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방규격 품질 개선사업'은 2012년도 규격개선사업을 통해 국방규격의 오류를 시정하고 국방규격없이 견본으로만 조달되던 군수품의 규격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했던 제품분석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대량으로만 구매가능하던 소재를 소량단위로 구매가 가능한 소재로 대체해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올해 사업은 2012년도 사업의 연장선으로 국방획득환경과 방산시장 실정을 고려해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사항은 △군수품 수리부속류 규격 신규 제정 △장병 체형에 맞는 전투복 보급 위한 전투복 치수 규정 △정부 규격과 업체 기술자료 일치작업 실시 등이다.

노수훈 방사청 장비규격팀장은 "2013년 국방규격 개선사업을 통해 군수품의 고객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1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